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 경향 분석: 1980년 이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Korea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Published in Journals between 1980 and 2006

한국성서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영유아보육학전공

부교수 김 정 원

경인여자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김 유 정

Department of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Korean Bibl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Jungw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in Women's College

*Full Time Instructor* : Kim, Youjung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trends in research on Korea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In this study, journal articles related to child and family stud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published between 1980 and 2006 were analyzed for research frequency, content, and methodology.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56 research articles on Korea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were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of time. Second, the research was primarily focused on fathering attitud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ther and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Third, the majority of the studies used methods categorized as quantitative and non-experimental: the subjects included more than 100 fathers with 3-5-year-old children. Research instruments validated in foreign countries (52.4%), surveys (75.4%), and quantitative data analysis methods (98.2%) were primarily used in these research studies.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concerning Korea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need to be conducted according to current research trends, content, and methodology.

**주제어(Key Words):**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Korea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연구 경향 분석(research trends analysis)

## I. 서론

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 시기의 의미를 밝히려는 시도와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최근에 들어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 시기의 사회문화적 의미, 가족 체계라는 맥락에서의 아버지의 존재, 자녀의 성취도와 제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자녀교육 현장에서의 아버지 참여의 유용성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족과 교육기관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연구자와 현장 교육자들에 의하여 인식되고 (Ballantine, 2000; Epstein, 1995; Riley, 1994)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고(이연섭, 1987; 정문자, 1987; Amato, 1994, 1998)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과소평가되어 아버지 역할의 영향력이나 아버지 참여의 필수성에 관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이연섭, 1987; 조선휘, 2004). 아버지 역할이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보다 양육적이라는 지속적인 문화적 신념과(Greiswold, 1993) 양육적인 것이 남성적인 것과 상반된다고 여기는 남성적인 역할모델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조선휘, 1997, 2004; Palkovitz, 1984). 또한 학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가 아버지의 존재 의미와 아버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를 상당 부분 방해하고 있는 것도 (Power, 1984)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아버지 시기의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속한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중매체에 의해서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실제와도 차이가 나는 보편적이고 인기 있는 아버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김명희, 2003; 이강옥, 2001; LaRossa & Reitzes, 1993) 이전 어느 시대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아버지 시기를 겪고 있는(Charles, Olsen, & Palm, 2003) 현대 사회의 특수한 상황적 맥락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선 이전과 비교해볼 때 사회경제적 변화와 상당히 다양해진 가족 유형이 그러한 체계에서 기능하는 아버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미숙, 김종숙, 김현주, 김혜경, 박옥희, 원영희, 이경아, 이선미, 이선이, 이선주, 이여봉, 장화경, 함인희, 2002; 김혜연, 신유림, 2005; 이영미, 민하영, 2006;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 Amato & Booth, 1997; Greiswold, 1993; Hanson & Bozett, 1985; Mackey, 1996; Reichart, 1999). 다변화된 현대사회의 양상이나 가족 유형과 관련되어 학계에서는 특히 이혼과 아버지 부재(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05; 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 2002; Amato, 1994, 1998; Reichart, 1999), 맞벌이로 인한 아버지 역할의 변화(유영주 외, 2005; Coltrane, 2000), 아버지 직업의 유형 및 질과 관련된 아버지 역할의 특수한 양상(이숙현, 2006; 이정순, 조희숙, 2005a, 2005b; Grimm-Thomas & Perry-Jenkins, 1994), 저소득층 아버지의 역할(권진숙, 신혜령, 김정진, 김성경, 박지영, 2006; Mosley, & Thomson, 1995; Vogel, Boller, Faerber, Shannon, & Tamis-LeMonda, 2003)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아버지의 존재 의미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에서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역할하기를 비교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다.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로서의 남성, 즉 아버지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족에서의 아버지 역할 및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업에의 아버지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제안하고 있다(Blankenhorn, 1995; Doherty, 1991).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생물학적, 유전적 성차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목적, 가치관, 그리고 방법으로 부모역할에 접근한다는 사실이 이제까지 알려진 여성과 남성의 표현적, 도구적 기능보다 훨씬 더 미묘한 부모역할의 차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조선휘, 2004; Amato, 1998; Biller, 1993; Gottman, 1998; Parsons, 1995; Roberts, 1996, Thevenin, 1993). 양성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동원 외, 2002; 이연섭, 1987; 정문자, 1987; Atkinson, 1993; LaRossa, 1988)과 함께 어머니의 역할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버지 시기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Amato, 1998; Biller, 1993; Gottman, 1998; Roberts, 1996). 또한 배우자인 여성이 아버지 역할을 제한하는 경향이나 부모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게 되는 것(Arendell, 2000; Belsky & Pensky, 1988)도 아버지 시기의 문화와 역할에 관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LaRossa & LaRossa, 1981; Roberts, 1996). 보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아버지의 양육적인 역할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으며(LaRossa & LaRossa, 1981; Roberts, 1996)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arsiglio, 1991; Thomason & Walker, 1989). 배우자인 여성이 아버지들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할 때 아

버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Simons, Whitbeck, Conger, & Melby, 1990)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여성 배우자의 영향력이 의미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아버지 시기의 의미와 아버지 역할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아버지와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여 아버지 시기의 의미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정도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되는 것에 관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황을 깊이 있게 밝혀내기 위하여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버지가 되는 것, 아버지로 역할 한다는 것에 관한 것은 그대로의 실제보다는 오히려 연구자나 전문가들에 의하여 아버지의 실제적인 경험이 왜곡되거나 만들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Charles, et al., 2003).

따라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여러 선행 연구들 중 관련 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 있는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그 연도별 발표 경향과 연구의 내용, 그리고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와의 최초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후 아버지-자녀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성 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자녀의 인지, 사회성, 신체 발달 등에 아버지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정문자, 1987). 또한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아기나 유아기 등 자녀의 어린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이연섭, 1987) 아버지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아버지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동향(조선화, 1997)이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

버지 관련 연구동향과 특성분석(조선화, 2004)은 이루어졌지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관련 연구의 동향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1980년대부터 2006년 중반까지 약 25년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회지에 게재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1980년부터 발행된 학술지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1957년에 발행되기 시작한 대한가정학회지를 제외하고는 분석대상 학회지들의 대부분이 1980년대 이후 발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연도별 발표 경향은 어떠한가?
-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내용 경향은 어떠한가?
- 셋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 및 가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서 발행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 국내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출생~학령전기의 영유아를 자녀로 둔 우리나라 아버지'로 정의하였다.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도서관의 학술지 자료검색에서 '영아', '유아'와 '아버지'를 검색한 후 검색 결과에서 2006년 8월 현재 한

〈표 1〉 분석 대상

학회지 발행 학회	학회지명	연도	분석 대상 논문	N(%)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1980-2006.8	10(17.9)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1957-2006.7	16(28.6)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3-2007.8	6(10.7)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1976-2006.8	3(5.4)	
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1996-2006.6	4(7.1)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1994-2006.5	6(10.7)	
미래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95-2006.6	6(10.7)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학논집	1997-2006.6	5(8.9)	
계			56(100)	

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 후보 학회지들을 선정하였다. '영아,' '유아,' '아버지' 등의 용어로 검색한 결과 대한가정학회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아동학회지, 열린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학논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영유아보육학 등의 학술지가 검색되었다. 검색되지 않은 학회지들 중 가족학이나 가족관계학, 심리학회지 등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가 게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학진등재(후보) 학회지들을 다시 분류하여 위의 검색 용어로 재검색함으로써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관련된 논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재검색 결과 한국가족복지학,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아동권리연구,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심리학회지 등에는 위의 검색 조건에 부합되는 연구물이 검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에서 발행자로 학회지를 검색한 후 '아버지' 나 '부모' 그리고 '영아' 나 '유아' 로 세부검색 하였다. 세부검색에서는 부모로 검색하여 아버지가 나타난 논문과 연구 문제 및 결과의 일부로 '부' 와 '모' 가 구별되어 아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영아 및 유아로 검색한 후 출생~학령전기의 영유아,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이 출생~학령전기 영유아와 함께 연구 대상에 포함된 경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 2. 분석 기준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을 연구의 발표 경향, 연구 내용의 경향,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연구의 연대별 발표 경향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포함하는 연구가 연대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의 논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1957년에 발행되기 시작한 대한가정학회지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학회지들의 대부분이 1980년대 이후 발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의 3기간으로 분류하여 연대별 발표 경향을 분석하였다.

### 2) 연구 내용의 경향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자녀로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내용 경향을 Charles, et al., (2003)이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발달 관련 내용, 아버지의 양육 태도에 대한 내용,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교육기관(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 3)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은 연구 유형, 연구 대상의 자녀 발달 단계, 연구 대상의 표집 크기, 측정 도구, 자료 분석 방법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연구 유형

본 연구에서는 최미숙, 황운세(2004)와 한태숙, 김연, 황혜정(2005) 등이 사용한 기준을 근거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문헌 연구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학회지에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관한 문헌 연구는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유형을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이루어진 자료수집 방법은 ① 관찰법 ② 면접법으로 구분하였으며 양적 연구에서 이루어진 자료수집 방법은 김지영(2006)이 사용한 기준을 근거로 ① 관찰법 ② 검사법 ③ 질문지법 ④ 면접법으로 구분하였다.

#### (2) 연구 대상의 자녀 발달 단계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술지 게재논문들의 연구 대상은 출생~학령전기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영유아를 포함하면서 12세 미만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① 출생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아기 ② 출생부터 만 7세까지의 영유아기 혼합 ③ 만 3세부터 만 7세까지 유아기 ④ 영유아기 및 학령기 혼합으로 구분하였다.

#### (3) 연구 대상의 표집 크기

연구 대상의 수, 즉 표집 크기는 ① 10명-50명 미만 ② 50명-100명 미만 ③ 100명-200명 미만 ④ 200명-300명 미만 ⑤ 300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표집 크기가 10명 미만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았다.

#### (4)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김지영(2006)이 사용한 기준을 근거로 측정 도구의 유형을 ① 외국인이 제작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경우, ② 여러 문헌과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도구를 고안하여 사용한 경우, ③ 타인이 제작한 비표준화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방법을 천희영(2006), 김지영

(2006)이 사용한 기준을 근거로 먼저 자료를 수량화하여 평가하는 양적 분석과 질적인 수준 및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질적 분석으로 구별하였다. 다음으로 양적 분석 방법은 ① 기술 통계(빈도, 평균, 범위 등), ② 차이 검증(카이 검증, t 검증, 일원 변량 분산 분석(one-way ANOVA), 공분산 분석(ANCOVA), 일원 다변량 분산 분석(one-way MANOVA) 등), ③ 관계 분석(이원 변량 분산 분석(two-way ANOVA)과 이원 다변량 분산 분석(two-way MANOVA)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본 경우, 상관 분석, 다중회귀 분석, 경로 분석 등), ④ 척도화 분석(요인 분석 등)으로 구분하였다. 단, 차이 검증을 위해 기술 통계를 사용한 경우는 기술 통계와 차이 검증에 중복으로 표기하지 않고 차이 검증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를 사용하여 각각의 내용을 발표 연대별로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내용이 분석의 하위 항목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연대별 발표 경향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의 발표 빈도를 연대별로 살펴본 결과, 1980년-2006년 중반까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관련 우리나라 연구는 총 56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는 1편(1.8%)밖에 없었으나, 1990년대는 17편(30.4%), 2000년대에는 38편(67.9%)으로 아버지 관련 연구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였다.

###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내용 경향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의 내용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논문의 내용

을 빈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대상 논문 한편에서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내용 범주에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내용의 전반적인 경향은 아버지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 25편(33.3%),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 43편(57.3%), 아버지 관련 변인과 자녀의 교육기관과 관련된 내용 5편(6.7%), 기타 2편(2.7%)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내용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 내용을 연대별로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1990년대 8편(10.7%), 2000년대 17편(22.7%),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은 1980년대 1편(1.3%), 1990년대 14편(18.7%), 2000년대 28편(37.3%)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아버지의 특성이나 배경 변인에 따른 자녀의 발달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이 관련 연구 분야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와 아버지-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아버지 관련 변인과 자녀의 교육기관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는 1990년대에 4편(5.3%)이 발표되었으나 2000년대 1편(1.3%)으로 오히려 연구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기타 내용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의 내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아버지가 평가한 유아의 다중지능에 관한 내용과 아버지 상에 대한 인식을 다룬 내용이다.

###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

####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관련 연구의 유형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을 연구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질적 연구 1편(1.8%), 양적 연구 55편(98.2%)으로 대부분 양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보면

<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관련 연구의 내용 경향

N(%) 다중빈도

구분	연대			전체
	1980-1989	1990-1999	2000-2006	
아버지-자녀 관계		8(10.7)	17(22.7)	25(33.3)
양육태도	1(1.3)	14(18.7)	28(37.3)	43(57.3)
아버지-자녀의 교육기관		4(5.3)	1(1.3)	5(6.7)
기타		1(1.3)	1(1.3)	2(2.7)
전체	1(1.3)	27(36.0)	47(62.7)	75(100)

〈표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관련 연구의 유형

N(%) 다중빈도

구 분		연 대			전 체
		1980-1989	1990-1999	2000-2006	
질적 분석	관찰법			1(1.4)	1(1.4)
	면접법				
양적 분석	관찰법		2(2.8)	2(2.8)	4(5.8)
	검사법		1(1.4)	4(4.8)	5(7.2)
	질문지법	1(1.4)	16(23.2)	35(50.7)	52(75.4)
	면접법		4(5.8)	3(4.3)	7(10.1)
전 체		1(1.4)	23(33.3)	45(65.2)	69(100)

〈표 4〉 연구 대상의 자녀의 발달 단계

N(%)

구 분	연 대			전 체
	1980-1989	1990-1999	2000-2006	
영아기		2(3.6)	2(3.6)	4(7.1)
영유아기		1(10.8)	2(3.6)	3(5.4)
유아기		13(23.2)	32(57.1)	45(80.4)
영유아기 및 학령기	1(1.8)	1(1.8)	2(3.6)	4(7.1)
전체	1(1.8)	17(30.4)	38(67.9)	56(100)

〈표 5〉 연구 대상의 표집 크기

N(%)

구 분	연 대			전 체
	1980-1989	1990-1999	2000-2006	
10-50명 미만		1(1.8)	2(3.6)	3(5.4)
50-100명 미만		1(1.8)	3(5.4)	4(7.1)
100-200명 미만	1(1.8)	6(10.7)	11(19.6)	18(32.1)
200-300명 미만		4(7.1)	14(25.0)	18(32.1)
300명 이상		5(8.9)	8(14.3)	13(23.2)
전체	1(1.8)	17(30.4)	38(67.9)	56(100)

〈표 3〉과 같다. 분석 대상 논문 한 편에서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이 다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질적 분석의 경우 연구물이 1편밖에 없었는데 이 연구는 면접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양적 분석의 경우 55편의 연구물에서 68가지의 자료수집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 중 질문지가 52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면접 7번, 검사 5번, 관찰 4번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 사용된 자료수집 방법을 보면 질문지법과 검사법 모두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면접법과 관찰법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대상 자녀의 발달 단계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의 연구 대상인 아버지들이 어느

발달 단계에 속한 자녀를 두고 있는지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유아기 45편(80.4%), 영아기 4편(7.1%), 영유아기 및 학령기 4편(7.1%), 영유아기 3편(5.4%)으로 연구 대상의 자녀는 대부분 유아기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 대상의 표집 크기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 대상을 표집 크기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연구 대상의 표집 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100-200명 미만(32.1%)과 200-300명 미만(32.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0명 이상(23.2%), 50-100명 미만(7.1%), 10-50명 미만(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 자료의 측정 도구

N(%) 다중빈도

구 분	연 대			전 체
	1980-1989	1990-1999	2000-2006	
외국인이 제작한 도구	1(1.2)	9(11.0)	33(40.2)	43(52.4)
연구자가 고안한 도구		6(7.3)	12(14.6)	18(22.0)
타인이 제작한 비표준화 도구		8(15.9)	13(15.9)	21(25.6)
전체	1(1.2)	23(28.0)	58(70.7)	82(100)

〈표 7〉 자료 분석 방법

N(%) 다중빈도

구 분	연 대			전 체
	1980-1989	1990-1999	2000-2006	
기술통계	1(0.9)	10(8.8)	10(8.8)	21(18.4)
차이검증	1(0.9)	14(12.3)	31(27.2)	46(40.4)
관계분석	1(0.9)	12(10.5)	29(25.4)	42(36.8)
척도화분석		1(0.9)	4(3.5)	5(4.4)
전 체	3(2.6)	37(32.5)	74(64.9)	114(100)

#### 4)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의 측정 도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분석 대상 논문 한 편에서 다양한 측정 도구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측정 도구는 양적 분석에서 사용되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55편의 양적 연구물에서 82가지의 측정 도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제작한 도구를 변안하여 그대로 사용한 경우 43번(52.4%), 타인이 제작한 비표준화 도구를 사용한 경우 21번(25.6%), 연구자가 고안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18번(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볼 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에 대한 연구 자료가 외국인이 제작한 도구를 변안한 검사 도구에 의해 가장 많이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의 자료 분석 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분석 대상 논문 한 편에서 다양한 자료 분석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55편의 양적 연구물에서는 모두 114가지의 자료 분석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이 검증이 46번(40.4%)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관계 분석 42번(36.8%)과 비슷한 비율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술 통계 21번(18.4%), 척도화 분석 5번(4.4%) 등의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1980년에서 2006년까지 약 25년간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관련 연구의 연대 별 발표 경향, 내용과 방법론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관련 연구의 발표 빈도를 연대별로 살펴본 결과 우선 연대별로 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관련 연구는 1980년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9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시기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족이나 유아 및 아동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아버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학회지가 1990년대 후반에 많이 출판된 것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발표 논문의 수를 종합해 보면 25년 동안 여덟 학술지에서 56편의 연구물이 발표된 것으로 앞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점차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 시기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사회와 가정에서의 영유아기 자녀

를 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다 신뢰성 있고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연구들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관련 연구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43편, 아버지와 관련된 제 변인과 자녀의 발달에 관한 내용이 25편, 아버지와 관련된 제 변인과 자녀의 교육기관에 관한 내용이 5편, 기타 2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버지와 자녀의 발달영역들 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 연구의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예: 이영석, 성영화, 2006; 한영숙, 2006). 아버지관련 변인들과 자녀의 성취도를 비롯한 자녀의 교육기관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1990년대 4편, 2000년대 1편으로 총 5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거나(예: 이완정, 현온강, 최혜란, 1997; 현온강, 최혜란, 1996)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다(예: 김정희, 1999; 정영숙, 1998; 홍길희, 황정해, 2006). 기타 내용은 본 연구의 분석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아버지가 평정한 유아의 다중지능에 관한 내용과 현재 아버지 상과 좋은 아버지상에 대한 아버지들의 인식을 다룬 연구이다(장영숙, 노운서, 2003; 정영숙, 1998).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볼 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련되어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핵가족에서 핵심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점과 태도(예: 강란혜, 2002; 황영미, 문혁준, 2006), 아버지와 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예: 김광웅, 이인수, 1998; 김소영, 옥선화, 2000; 이정순, 조희숙, 2005b; 장영숙, 조혜정, 2006), 그리고 아버지의 이러한 관점과 태도가 가족 구성의 또 다른 주축인 어머니의 양육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와 같은 가정의 태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역할들 간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들(예: 이영미, 민하영, 2006; 이정순, 2003b,c,d)이 이루어져 왔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핵가족과 취업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인 육아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과 태도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예

를 들면 아버지들의 현재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그들의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후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나 아버지들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양육지원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 혹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대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으로 인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상황과 이러한 맥락의 특성을 고려한 아버지 역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다양한 현실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특정 사회문화적 배경의 아버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롭고 도전적인 아버지 역할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된 논문의 수를 볼 때 아버지와 관련된 제 변인들과 자녀의 발달,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앞으로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관련 제 변인과 자녀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그 수가 증가하여 전체 아버지 관련 연구 56편 중 25편에 이른다. 이는 아버지 관련 연구 전체의 절반 정도의 수치이다. 하지만 핵가족과 한부모 가정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가족 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한층 막중해진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배경 변인뿐 아니라 아버지와 유아간의 상호작용, 자녀와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언어의 유형, 유아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주요 관심 분야 및 신념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도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유아의 발달을 최선의 상태로 이끌기 위한 아버지 관련 변인들에 관한 깊은 통찰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볼 때 아버지와 자녀의 교육기관과 관련된 연구는 전체 분석 논문 중 5편에 불과하였다.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의 교육 관련 성취도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족과 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자녀의 발달이나 학업 성취도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교육자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의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경향(Charles, et al., 2003; Epstein, 1995; Riley, 1994)이 아버지 관련 연구 분야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기관 출석률, 교육기관에서의 과업 성취도, 학업과 개인적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가족 체계에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제안(이연섭,



1987; 정문자, 1987; Amato, 1998; Marsiglio, Amato, Day, & Lamb, 2000)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와 관련된 제 변인,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기관에의 참여 정도나 참여의 적극성 등의 변인과 자녀의 성취도나 기타 학업과의 관련성을 밝혀낼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를 방법론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연구 유형, 연구 대상 자녀의 발달 단계, 연구 대상의 표집 크기, 측정 도구, 자료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연구(55편, 98.2%)가 양적 연구로 질적 연구는 극히 소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연구 유형이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특정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만으로는 현대 사회 아버지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Parke, 2004). 특히 아버지 역할은 어머니 역할보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맥락적 요소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Doherty, Kouneski, & Erickson, 1998) 아버지의 존재 의미나 아버지 역할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이루어지는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Charles, *et al.*, 2003). 다양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Charles, *et al.*, 2003). 이밖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와 관련된 문헌 연구가 전무하므로 아버지 시기의 의미와 개념 등을 밝혀내기 위하여 다양한 문헌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문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술 관련 문헌을 고찰하는 문헌 연구 이외에도 예를 들어 잡지 등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도 아버지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현대 사회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정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1980년에서 1989년에 걸쳐 발간된 대중잡지의 아버지 관련 기사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Atkinson, 1993). 한편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의 경우, 질문지가 52편(75.4%)으로 가장 많았고, 면접, 검사, 관찰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이 질문지 방법을 사용한 것은 다른 자료 수집 방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같은 현상이라도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검사, 면접, 관찰과 같은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 아버지들이 어느 발달 단계의 자녀를 두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3-5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

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5편(80.4%)으로 2세미만 영아(7.1%)나 영유아(5.4%), 그리고 영유아기 및 학령기(7.1%)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유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졌고, 유아교육기관이 주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아나 유아와 연계된 학령기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가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영아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을 밝혀내는 것이 유아에 대한 영향력을 밝혀내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영아의 주양육자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이므로 영아가 어머니 이외의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데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경향과(이연섭, 1987) 영아가 보육시설 등 사회 체계에서 양육을 받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경향으로 가정에서 개별적인 양육을 받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는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등 사회 체계에서 양육되고 있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자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 추정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영아 관련 연구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밝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함께 유아와 연계된 학령기 아동을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역할 등에 관한 장기 종단적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접어들며 변화하는 발달 과업에 적응하는 자녀를 위하여 보다 적절한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 대상의 표집 크기를 보면, 100-200명 미만(32.1%), 200-300명 미만(32.1%), 300명 이상(23.2%), 50-100명 미만(7.1%), 10-50명 미만(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에서는 연구 자료의 측정 도구로 외국인이 제작한 도구, 타인이 제작한 비표준화 도구, 연구자가 고안한 도구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의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은 어머니 역할보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맥락적 요소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Doherty, *et al.*, 1998) 주장을 볼 때 외국 문화권에서 제작된 도구나 타인이 제작한 비표준화 도구의 사용으로는 특정 연구의 대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연구 대상 아버지들이 속해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제작된 연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신뢰

성 있는 연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아버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측정 도구의 제작 및 타당화와 관련된 연구도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적 연구에서 이루어진 자료 분석 방법의 경우 차이 검증, 관계 분석, 기술 통계, 척도화 분석 등이 비교적 골고루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배경 변인에 의한 아버지의 양육 태도나 유아의 발달관련 변인과의 차이나 상관을 분석하거나 아버지를 둘러싼 여러 변인들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나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t검증, 카이 검정 등의 차이 분석 방법 이외에도 상관관계 분석, 중다회귀 분석, 경로 분석 등의 관계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2000년대에는 척도화 분석 중 하나인 요인분석에 의해서 아버지의 양육책임이나 육아의식의 하위 요인들을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예: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 이정순, 무로타카시, 2001; 이정순, 조희숙, 2005a). 요인분석은 하나의 개념이 어떤 하위 개념들로 구성되어졌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이끌어낸 구성 요소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묶음으로써 그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을 규명하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의 구성 요인들을 알아내어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대 사회의 아버지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 위하여 유용하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련되어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에 따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의 아버지 시기의 의미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바른 통찰을 제안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버지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아버지 관련 연구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실제적인 모습과 그들의 삶에 관한 현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아버지들의 직장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이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깊어지는 빈부격차에 의하여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빈곤계층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의 실태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과거와 비교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아버지들의 모습에 관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내용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볼 때 이제까지 이루어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의 주제가 편중된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 결과를 볼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자녀의 발달과의 관련성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에 비하여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비롯한 학업과 관련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우리 사회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 자녀의 교육기관에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의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양육에의 참여가 이후 자녀의 다방면에서의 발달 및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장기 종단적 연구도 영유아기 아버지 역할의 의미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의 방법론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이제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가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양적 분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특정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에 관한 명확한 현상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질적 분석을 활용하거나 양적 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면접법이나 관찰법 등의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보다 다양화된 유형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영아를 포함하거나 학령기 아동과의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는 등으로 연구의 대상을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 연구의 대상을 확장시키고 보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다변화된 사회에서 변화하는 아버지 역할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나라 아버지들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란혜(2002). 아버지됨에 의한 심리적 변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애발달적 관점. *한국영유아보육학*, 29, 95-109.
- 권진숙, 신혜령, 김정진, 김성경, 박지영(2006). *가족복지론*. 고양: 공동체.
-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유아의 사회·

-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규수, 윤진주, 김선혜(2004). 유아의 사회 성숙도와 아버지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2), 277-295.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 김명순, 권희경(2002).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동 문해 발달에 대한 태도 및 가정 문해환경. 대한가정학회지, 40(1), 147-162.
- 김명희(2003). 현대사회와 부모교육—디지털시대 부모 자녀관계의 이해. 서울: 교육아카데미.
- 김미숙, 김종숙, 김현주, 김혜경, 박옥희, 원영희, 이경아, 이선미, 이선이, 이선주, 이여봉, 장화경, 함인희(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소영, 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9.
- 김예빈, 박성연(2005). 남·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화 양육신념. 아동학회지, 26(6), 145-160.
- 김은지, 박성연(2002). 아버지의 사회화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3(3), 187-203.
- 김정희(1999). 유아를 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251-292.
- 김지영(2006). 유아 수학평가도구를 사용한 수학연구의 동향 분석: 1981년 이후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1), 233-252.
- 김혜연, 신유림(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93-102.
- 노현미, 박인전(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4), 231-245.
- 문혁준(2000a). 또래 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문혁준(2000b). 부와 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자녀 훈육방법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123-137.
- 문혁준(2000c).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방은령(1986).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아동학회지, 7(2), 33-53.
- 설경옥, 문혁준(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7), 1-9.
- 송하나(2006).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 75-85.
- 심성경, 김나림(1997). 아버지-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 개념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17(2), 139-160.
- 양미경, 조복희(2000). 에릭슨의 발달과업으로 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아버지간 애착안정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57-64.
- 오연주, 조복희, 강희경(2000). 유아의 신체활동 및 아버지의 참여에 관한 실태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2, 57-84.
- 우정희, 이미숙, 전춘애(200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2), 91-101.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2005).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윤종희, 이인숙(1993). 부모의 성역할유형, 부부간 권력유형과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91-202.
- 이강옥(2001). 달라지는 아버지, 달라져야 하는 아버지. 모성, 부성, 그리고 변화하는 부모역할,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51-69.
- 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2002). 한국 가족의 현주소. 서울: 학지사.
- 이숙현(2006). 생산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33-150.
- 이순복(2005a). 아버지의 특성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2), 135-151.
- 이순복(2005b). 영재유아의 창의성과 영재유아 아버지의 특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101-124.
- 이순복, 전귀연(2006). 부모 및 가족 특성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6(4), 283-310.
- 이연섭(1987). 현대가족에서의 아버지 역할.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현대가족에서의 아버지 역할, pp. 103-106.
- 이영미, 민하영(2006).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의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24(4), 93-101.
- 이영석, 성영화(2006). 부모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도 및 일치도와 유아 감성지능과의 관계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37-159.
- 이영환(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40-53.
- 이영환(1999).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대한가정학회지, 37(12), 91-102.
- 이영환, 백지은(1998).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애착,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1), 1-28.

-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영환, 한영숙(2000).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동적가족화 반응특성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333-360.
- 이완정, 현온강, 최혜란(1997).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보육인지도가 아버지의 보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1), 155-168.
- 이정순(2003a).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정순(2003b).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관과 아동관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7(4), 53-67.
- 이정순(2003c).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2), 183-199.
- 이정순(2003d).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9-108.
- 이정순, 무로타카시(200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의식과 육아스트레스: 여성의 취업과 개인지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5(2), 89-110.
- 이정순, 조희숙(2005a).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이 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9(2), 43-58.
- 이정순, 조희숙(2005b). 직업종류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와 직업역할, 가족역할과의 관련성비교: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0(3), 339-360.
- 이지선,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장영숙(2004).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다중지능과 부모의 다중지능 및 교육수준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8(3), 109-134.
- 장영숙, 강경석, 김희정(2003).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4(4), 41-53.
- 장영숙, 강경숙, 허은진(200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61-83.
- 장영숙, 노운서(2003). 유아의 다중지능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 교사의 평가 비교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7(2), 5-31.
- 장영숙, 노운서(2004). 아버지의 학력,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 일치도 지각 및 다중지능과 유아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9, 149-169.
- 장영숙, 조혜정(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0(1), 251-268.
- 정문자(1987). 발달 주기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현대가족에서의 아버지 역할, pp. 107-115.
- 정영숙(1998). 대상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변별화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4, 27-52.
- 정현희,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 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조복희, 현온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조선화(1997). 아버지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동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 179-203.
- 조선화(2004). 아버지-청소년 자녀에 관한 연구동향과 특성 분석-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6(2), 129-145.
- 천희영(2006). 아동의 기질과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 경향 분석: 1980-2004. *아동학회지*, 27(4), 17-38.
- 최경순 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1), 125-139.
- 최미숙, 황윤세(2004). 유아발달에 관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 경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24(5), 187-205.
- 한영숙(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한태숙, 김연, 황혜정(2005). 『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1994-2004. *유아교육연구*, 25(3), 219-238.
- 현온강, 최혜란(1996). 유아기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부모의 보육인지도와 보육만족도. *한국영유아보육학*, 8, 145-172.
- 홍길희, 황정해(2006).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아동학회지*, 27(3), 301-317.
-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4(4), 521-529.
- 황영미, 문혁준(2006).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대한가정학회지*, 44(2), 83-91.
- 황정해(2006). 아버지됨 경험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의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43-60.
- Amato, P. R. (1994). Life-span adjustment of children to their parents' divorce. In E. N. Junn & C. J. Boyatzis (Eds.), *Child growth and development* (pp.

- 149-169). Guilford, CT: Dushkin/McGraw Hill.
- Amato, P. R. (1998). More than money? Men's contribution to their children's lives. In A. Booth & A. C. Crouter (Eds.), *Men in families* (pp. 241-276). Mahwah, Lawrence Erlbaum.
- Amato, P. R., & Booth, A. (1997). *A generation at risk: Growing up in an era of family upheava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rendell, T. (2000). Conceiving and investigating motherhood: The decade's scholar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192-1207.
- Atkinson, M. P. (1993). Fathering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4), 975-986.
- Ballantine, J. H. (2000). Figuring in the father factor. For parents particularly. *Childhood Education*, 76(2), 104-105.
- Belsky J., & Pensky, E. (1988). Marriage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133-156.
- Biller, H. B. (1993). *Fathers and families: Parental factors in child development*. Westport, CT: Auburn.
- Blankenhorn, D. (1995). *Fatherless America: Confronting our most urgent social problem*. Dallas, TX: Harper, Collins.
- Charles, B. H., Olsen, G., & Palm, G. (2003). Fatherhood, society, and school. In Olsen, G. & Fuller, M. L. (Eds.), *Home-school relations: Working successfully with parents and families*. 2nd ed. Pearson Education, Inc. pp. 290-323.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08-1233.
- Doherty, W. J. (1991). Beyond reactivity and the deficit model of manhood: A commentary on articles by Napier, Pittman and Gottm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17, 19-32.
- Doherty, W. J., Kouneski, E. F., & Erickson, M. F. (1998). Responsible fathering: An over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277-292.
- Epstein, J. L. (1995). School/family/community partnerships: Caring for the children we share. *Phi Delta Kappan*, 76(9), 701-712.
- Gottman, J. M. (1998). Toward a process model of men in marriages and families. In A. Booth & A. C. Crouter (Eds.), *Men in families* (pp. 23-41). Newbury Park, CA: Sage.
- Grimm-Thomas, K., & Perry-Jenkins, M. (1994). All in a day's work: Job experiences, self-esteem, and fathering in working-class families. *Family Relations*, 43(2), 174-81.
- Griswold, R. L. (1993). *Fatherhood in America: A history*. NY: Basic Books.
- Hanson, S. M. H., & Bozett, F. W. (1985). *Fatherhood: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ED269711.
- LaRossa, R. (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 LaRossa, R., & LaRossa, M. (1981). *Transition to parenthood: How infants change families*. Beverly Hills, CA: Sage.
- LaRossa, R., & Reitzes, D. C. (1993). Continuity and change in middle class fatherhood, 1925-1939: The culture-conduct conne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455-468.
- Mackey, W. C. (1996). *The American father: Biocultural and developmental aspects*. The Plenum Series in adult development and aging. ED420419.
- Marsiglio, W. (1991). Parental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973-986.
- Marsiglio, W., Amato, P., Day, R. D., & Lamb, M. E. (2000). Scholarship on fatherhood in the 1990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173-1191.
- Mosley, J., & Thomson, E. (1995). Fathering behavior and child outcomes: The role of race and poverty. In W. Marsiglio (Ed.), *Fatherhood: Contemporary theory, research, and social policy*. Thousand Oak, CA: Sage.
- Palkovitz, R. (1984). Parental attitudes and father's interaction with their five-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54-1060.
- Parke, R. D. (2004, Oct). Fathers, families, and the future: a plethora of plausible predictions. *Merrill Palmer Quarterly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0(4), 456-470.

- Parsons, T. (1995). Family structure and socialization of the child. In T. Parsons & R. F. Bales (Eds.),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es* (pp. 35-131). Glencoe, IL: free Press.
- Power, T. G. (1984). Life with father: New directions for family policy. Review of M. e. Lamg and A. Sagi (Eds.). *Fatherhood and family policy*. Hillsdale, NJ: Erlbaum, 1983. In *Contemporary Psychology*, 29(4), 324-325.
- Reichart, D. (1999). *Broke but not deadbeat: Reconnecting low income fathers and families*. Denver, CO: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 Riley, R. (1994). Families come first. *Principal*, 74(2), 30-32.
- Roberts, P. (1996). Fathers' time. *Psychology Today*, 29(3), 48-56.
- Simons, R., Whitbeck, L., Conger, R., & Melby, J. (1990).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375-392.
- Thevenin, T. (1993). Mothering and father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child rearing. ED399075.
- Thomason, L., & Walker, A.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Vogel, C. A., Boller, K., Faerber, J., Shannon, J. D., & Tamis-LeMonda, C. S. (2003). Understanding fathering: The early head start study of fathers of newborns. ED480654.

---

(2007년 2월 28일 접수, 2007년 3월 28일 채택)